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사상)

성명

수험 번호

2

제 [] 선택

윤리와사상

1. 다음 메일을 쓴 사람이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받은 메일함

○○에게

어제 비대면 세미나에서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특성은 무엇입니까?’라는 자네의 질문에 통신 장애로 인해 답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네. 그 답을 이 메일로 대신하네. 자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동물과 생물학적으로는 유사한 측면이 많네.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욕구를 지니고,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지. 하지만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어떤 사상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이성 능력을 통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네. 이것이 바로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가장 큰 특성이라네.

- ① 본능에 따라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②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관습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③ 생존 활동에 필요한 욕구 충족을 우선시하는 존재이다.
 ④ 숙고와 성찰을 통해 윤리적으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존재이다.
 ⑤ 세속에서 벗어나 초월적 존재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다.

2. (가)를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
|-----|--|
| (가) | 현명함을 숭상하지 않음으로써 백성이 다투지 않게 하고[不爭],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백성이 도둑질하지 않게 하며, 욕심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백성의 마음을 어지럽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의 다스림이란 백성의 마음을 비우게 하여 그 배를 든든히 채워주며 백성으로 하여금 아는 것을 없게 하고 욕심을 없게 한다. |
| (나) | 학생: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상가: ㉠ 합니다. |

- ① 강력한 법령과 통치술로 백성을 강제해야
 ② 인의(仁義)의 실현을 통치의 목적으로 삼아야
 ③ 공정한 사회 제도와 문명을 발전시키려 노력해야
 ④ 시비(是非)를 분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⑤ 의도적인 조작이 없는 무위(無爲)의 정치를 실현해야

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미루어 남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인(仁)의 실천 방법이다.
 ○ 인은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克己復禮]이다. 인을 실현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지 어찌 남에게 달려 있겠는가?

- ① 자신의 직분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가?
 ②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아야 하는가?
 ③ 자기 부모에 대한 효도보다 이웃 사랑을 먼저 실천해야 하는가?
 ④ 통치자는 덕으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를 실현해야 하는가?
 ⑤ 통치자는 재화의 적음보다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가?

4. 근대 한국 사상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사람은 한울님의 신령한 기운을 모시고 있다[侍天主]. 허나 어찌 사람만이 홀로 한울님을 모셨다 하겠는가? 만물이 모두 한울님을 모시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 일원상[○]은 신앙과 수행의 표본이다. 일원상의 진리를 깨우쳐서 정신 생활과 물질 생활, 이상과 현실의 조화로 영육이 함께 온전해지는[靈肉雙全] 삶을 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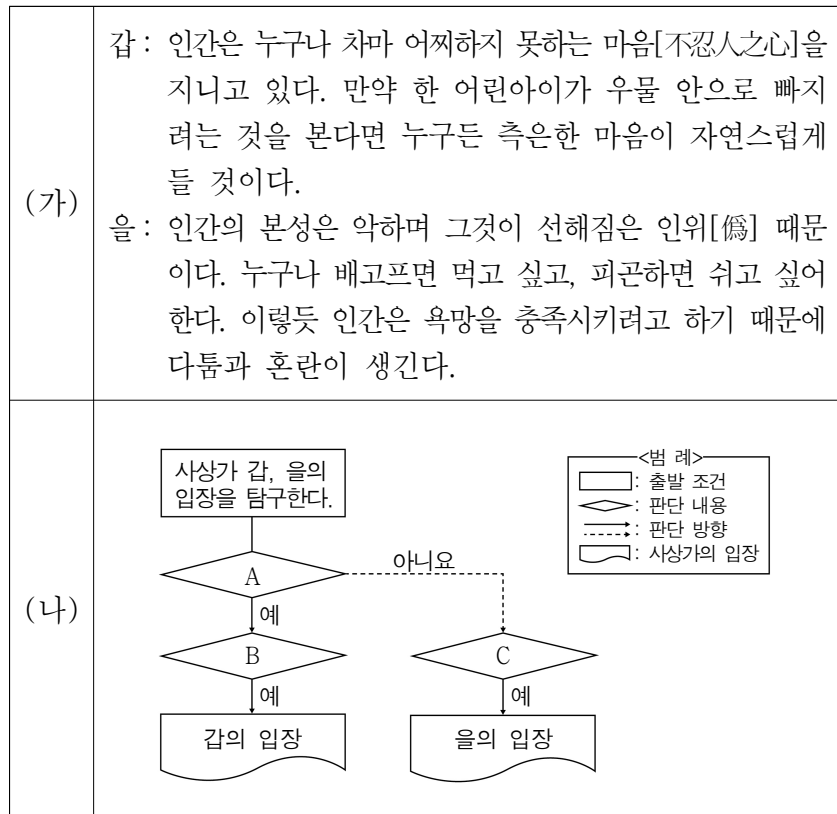
- ① (가)는 사람을 신분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본다.
 ② (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서학(西學)을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③ (나)는 정신 개벽보다 물질 개벽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④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종교적 수행을 할 수 없다고 본다.
 ⑤ (가), (나)는 현세에서 이상 사회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본다.

5.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어떤 것이 그 네 가지인가? 괴로움[苦諦], 괴로움의 발생[集諦], 괴로움의 소멸[滅諦],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道諦]이 그것이다.

- ① 인간은 오온(五蘊)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실체이다.
 ② 극단적인 고행(苦行)을 통해서만 열반에 이를 수 있다.
 ③ 만물의 무상(無常)함을 깨달아 괴로움을 소멸시켜야 한다.
 ④ 사물에 대한 집착을 없애기 위해 삼독(三毒)을 실천해야 한다.
 ⑤ 차별 없는 사랑인 자비를 실천하면 무명(無明)에 도달할 수 있다.

6.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 ㄱ. A: 인간은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부여받았는가?
 ㄴ. A: 누구나 수양을 하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는가?
 ㄷ. B: 집의(集義)를 통해 도덕적 기개를 길러야 하는가?
 ㄹ. C: 성정(性情)을 교화하기 위해 스승과 법도가 필요한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 A, B의 특징을 비교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서술하시오.

| | |
|--------------|--|
| ○ A : |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 원리가 되는 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체계화한 것이다. |
| ○ B : |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함으로써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모습이며, 이러한 사회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등의 논의를 체계화한 것이다. |

◎ 학생 답안

A, B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A는 ㉠ 일반적으로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탐구하며, ㉡ 자신의 삶과 행동을 반성하면서 도덕적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 이에 비해 B는 ㉢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탐구하며, ㉣ 현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과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A, B는 ㉤ 상호의존적이며 보완적인 관계이므로 각자 독립적인 영역을 갖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8.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청색[靑]과 남색[藍]이 다르지만 그 바탕을 보아서는 같으며, 얼음과 물이 다르지만 그 근원은 동일한 것이다.
 ○ 모든 경계가 무한하지만 다 일심(一心)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부처의 지혜는 모양을 떠나 마음의 원천으로 돌아가고, 지혜와 일심은 완전히 같아서 둘이 없는 것이다.

- ① 일심으로 돌아가려면 특정 계율에 얽매인 수행만이 필요하다.
 ② 서로 다른 불교 이론과 학설의 다양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③ 육바라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불성(佛性)을 형성할 수 있다.
 ④ 모든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
 ⑤ 윤회(輪廻)에서 벗어나려면 진리와 세속이 다름을 깨달아야 한다.

9. 그림은 어떤 학생의 탐구 보고서 내용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교 사상 ○○에 대한 탐구 보고서

1. 유행 시기: 위나라와 진나라의 정권교체기
 2. 관련 사상가들: 죽림칠현(竹林七賢)
 3. 특징
 가. 노장(老莊)사상을 철학적으로 계승함
 나. 무(無)의 세계를 통한 정신적 자유를 추구함
 다. ㉠
 라. 부패한 정치 현실에 등을 돌리고 자연에 묻혀 살아감

- ① 내세의 행복을 위해 제왕(帝王)의 통치술만을 강조함
 ② 은둔의 삶에서 탈피하여 사회 참여적인 태도를 강조함
 ③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게 하는 제례의식을 강조함
 ④ 세속적 가치를 초월한 예술적·형이상학적 담론을 추구함
 ⑤ 신선(神仙)의 도를 익혀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을 추구함

10. 중국 불교 사상가 갑, 한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어떤 사람이라도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을 듣고 밖으로 닦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의 자성(自性)으로 하여금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단박에 깨닫게 된다[頓悟].
 을: 비록 자신의 본성이 본래 부처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단박에 깨닫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익혀온 습기(習氣)는 단번에 제거하기 어려우니 지혜로 공을 들이고 노력해야 커다란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 <보 기> —

- ㄱ. 갑: 자신의 마음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직관해야 한다.
 ㄴ. 갑: 선(禪) 수행을 통해 불변하는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ㄷ. 을: 정(定)과 혜(慧)를 함께 닦아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ㄹ. 갑, 을: 경전 공부를 통해서만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가)의 중국 유교 사사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성이 곧 이치이다[性卽理]. 가려지거나 막히는 것이 적으면 발현한 천리(天理)가 이기겠지만 가려지고 막힌 것이 많으면 사욕(私欲)이 이긴다. 그러므로 본연(本然)의 성은 반드시 선이다.

을: 마음이 곧 이치이다[心卽理]. 사욕에 어두워지지 않는 마음이 곧 천리이니, 마음 밖에서 조금이라도 보탬 필요가 없다.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이 효(孝)이고, 임금을 섬기면 충(忠)이다.

갑

을

A

B

C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보 기>—
ㄱ. A: 앎[知]은 행함[行]의 시작이고 행함은 앎의 완성이다.
ㄴ. B: 천리를 보존하고[存天理] 인욕을 제거해야[去人欲] 한다.
ㄷ. C: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고 마음과 무관한 사물도 없다.
ㄹ. C: 양지(良知)는 수양을 통해 형성되는 도덕적 실천 능력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하늘이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부여한 것을 본성[性]이라 하고, 이 본성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행동하는 것을 도리[道]라고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도리를 끊임없이 실천하게 하는 것이 가르침[教]이라고 한다.

(A)

(B)

[가로 열쇠]
(A):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리가 있음을 뜻하는 말. 오륜(五倫) 중 하나
(B): 아버지와 아들을 뜻하는 말. ○○관계

[세로 열쇠]
(A): 개념

- ① 현실을 떠나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② 자신을 수양하여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고자 힘쓰는 사람이다.
③ 팔정도(八正道)를 실천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④ 예악(禮樂)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다.
⑤ 의로움을 행하기보다 자신의 물질적 풍요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13. 불교 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모든 사물은 무자성(無自性)이고,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空)이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주장도 연(緣)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무자성이고,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다.

(나) 모든 것은 다만 식일 뿐[唯識], 그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눈병이 걸린 사람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머리 카락이나 달 등이 보이는 것과 같이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 허망하게 나타나 보이는 것일 뿐이다.

- ① (가):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발생하며 자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가): 극단에 치우친 견해를 벗어나 중도(中道)를 통찰해야 한다.
③ (나): 마음의 작용을 떠나서는 어떠한 현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④ (나):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어지러운 의식을 제거해야 한다.
⑤ (가), (나): 중생의 구체보다 수행자의 해탈만을 중시해야 한다.

14.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지인(至人)은 구름을 타고 해와 달에 올라 사해(四海) 밖에 노닌다. 그에게는 삶과 죽음마저 상관이 없는데, 하물며 이로움이니 해로움이니 하는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 그대에게 지금 큰 나무가 있는데 쓸모가 없어 걱정된다면, 드넓은 들판에 그 나무를 심어 놓고, 그 곁을 자유롭게 거닐면서 아무런 하는 일 없이 지내도 좋지 않겠는가.

—<보 기>—
ㄱ. 오감(五感)을 바탕으로 윤리적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
ㄴ. 모든 차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해야 한다.
ㄷ. 외물에 얽매이지 않는 절대 자유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
ㄹ. 자연과 하나 된 몰아일체(物我一體)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근대 한국 사사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난세(亂世)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正學)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물리쳐야 한다. 적이 오면 적을 막아내고, 적이 가면 윤리를 닦고 밝혀 사악한 것을 잠재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을: 난세에 우리의 도(道)를 실천할 수 있다면 서양의 기(器)를 시행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처럼 쉬운 일이다. 우리의 도를 가지고 서양의 기를 행한다면 지구상 오대주를 평정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갑: 사회 혼란의 극복을 위해 유교적 가치를 고수해야 한다.
② 갑: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③ 을: 시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서구식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④ 을: 민족 주체성 수호를 위해 유·불·도 삼교(三敎)를 통합해야 한다.
⑤ 갑, 을: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위해 서양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

16.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 힘으로써 인(仁)을 가장하고 큰 나라를 지향하는 것은 패도(霸道)이고, 덕으로써 인을 행하는 것은 왕도(王道)이다.
- 군주가 어질면 어질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되고, 군주가 의로우면 의롭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된다. 인에 머물고 의를 따르면 대인(大人)의 일이 갖추어진 것이다.

| 입장 | 학생 | 갑 | 을 | 병 | 정 | 무 |
|--|----|---|---|---|---|---|
|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므로 군주보다 귀한 존재이다. | | √ | | | √ | √ |
| 백성에게 향산(恒産)을 보장해 주는 것이 왕도의 시작이다. | | √ | √ | | √ | |
| 군주는 나라의 이익 증진을 위해 힘과 무력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 | | | √ | √ | √ |
| 군주가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더라도 군주를 교체할 수 없다. | | | √ | √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7.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사단(四端)은 이(理)가 발하고 기(氣)가 따르는 것이고, 칠정(七情)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것이다. 기가 따르지 않는 이는 나올 수가 없고, 이가 타지 않는 기는 곧 이기적 욕망에 빠져서 금수(禽獸)가 된다.

을: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것이다. 어린 아이를 보고서 측은히 여기는 것은 기이니 이것이 기가 발한다는 것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의 근본은 인(仁)이니 이것이 이른바 이가 탄다는 것이다.

— <보 기> —

- ㄱ. 갑: 사단과 칠정이 발하는 근원은 분명하게 구분된다.
- ㄴ. 갑: 칠정은 기가 발한 것으로 반드시 악으로 드러난다.
- ㄷ. 을: 사단은 칠정의 순수하고 선한 측면만을 가리킨다.
- ㄹ. 갑, 을: 사단에는 이만 있고, 칠정에는 이와 기가 함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그림에서 교사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⑦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대답해 볼까요?

| 사상 | 주요 개념 | 공통점 |
|----|------------|-----|
| 유교 | 천인합일(天人合一) | ⑦ |
| 불교 | 인연생기(因緣生起) | |
| 도가 | 무위자연(無爲自然) | |

갑: 자연은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을: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므로 책임 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봅니다.

병: 만물은 서로 밀접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봅니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갑, 을 ⑤ 을, 병

19.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하늘은 인간에게 선을 할 수도 있고 악을 할 수도 있는 권형(權衡)을 부여하였다. 아래로는 선을 행하기 어렵고 악을 행하기는 쉬운 형구(形軀)의 기호(嗜好)를 주었으며, 위로는 선을 즐겨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영지(靈知)의 기호를 주었다. 그러므로 선하면 곧 자기의 공(功)이 되고, 악하면 곧 자기의 죄가 된다. 이것은 마음의 권능이며, 본성은 아니다.

- ① 사단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선한 감정이다.
- ② 수양을 통해 인간이 지닌 모든 생리적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
- ③ 인간에게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사덕(四德)이 내재되어 있다.
- ④ 인간은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을 지닌 존재이다.
- ⑤ 인간과 동물이 모두 지닌 형구의 기호는 그 자체로 악한 것이다.

20.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옛날에 성왕(聖王)은 사람들의 본성이 악해 바르지 못하여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임금의 권세로 군림하고, ㉠예의(禮義)를 밝히고 올바른 법도를 만들어 다스려 악한 행동을 금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 세상이 모두 잘 다스려지도록 하고 선함으로 모이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성왕의 다스림이다.

- ① 인간이 지닌 측은한 마음[惻隱之心]의 단서를 나타낸 것이다.
- ② 성인(聖人)이 제정한 도덕 생활과 통치의 표준을 뜻하는 것이다.
- ③ 인간의 타고난 도덕성이 외면적 사회 규범으로 표현된 것이다.
- ④ 사회 혼란의 원인이자 인위적인 도덕 규범에 해당하는 것이다.
- ⑤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 도덕적 삶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